



아버지의 새로운 고침, 아이와의 새로운 연결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아버지, 이인재라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과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니,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아이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가족센터 선생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도 처음이지만 저도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석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초 「존중받는 부모로 자기매김하기」라는 부모교육을 알게 되었고, “나는 과연 존중받는 부모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교육장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퇴근길 교통 체증에 갇혀 있을 때는 돌아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장에 도착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부모님들을 볼 때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아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검사를 통해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조금한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 새로워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색하고 민감하다고 피하던 주제였지만, 부모가 먼저 올바른 언어로 아이와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청소년 도박·마약·전자담배 예방교육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사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확실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이야기, 실제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접하며 “이 문제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곁에 와 있습니다.”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핸드폰 게임 도박 같은 거 하나?” 아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아이도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육 전에는 아이와의 대화가 일방적이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가 먼저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짜증도 덜 내서 좋아.” 짧은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아이가 느낀 변화를 직접 표현해 주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부모교육을 들 때마다 제 마음이 [새로고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제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투를 고치려 노력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시 교육을 들으면 다시 변화려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와 아들이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을 열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센터는 서툰 부모였던 저를 조금 더 강하고 멋진 부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이 더 많은 부모에게 닿아, 저처럼 고민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